

도입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본문 룻기 4:15-17

-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 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 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Ruth 4:15-17

15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who is more to you than seven sons, has given birth to him.” 16 Then Naomi took the child and laid him on her lap and became his nurse. 17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gave him a name, saying,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설교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그리고 신앙의 실천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기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쓰라린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룻 1:1-5, 1:20-21). 그러나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난과 회복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룻 1:13).

모압 여인 룻은 놀라운 믿음을 보이며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선언하며(룻 1:16), 익숙한 고향과 안정된 삶, 재혼의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변함없는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룻 4:13-17).

하나님의 섭리는 나오미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슬픔 속에서 떠났던 그 땅이 결국 그녀의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 아름답게 엮어 가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을 넘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룻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룻 4:14-15). 이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설교

The story of Ruth is a profound testimony of God's providence, sovereignty, and faith in action, even in the darkest times. Naomi's life was marked by famine, the death of her husband and two sons, and her return to Bethlehem empty-handed and bitter (Ruth 1:1-5, 1:20-21). Yet, even in her despair, she acknowledged that all things were under God's control, recognizing both suffering and restoration as part of His divine will (Ruth 1:13).

Ruth, a Moabite widow, demonstrated extraordinary faith by choosing to stay with Naomi. She declared, "Your God will be my God" (Ruth 1:16), willingly leaving behind her familiar homeland, security, and the possibility of remarriage. Her steadfast commitment to Naomi and to God's people was a bold act of faith that ultimately became instrumental in God's redemptive plan. Through her faithfulness, she married Boaz, bore a son, and became the great-grandmother of King David (Ruth 4:13-17).

God's providence was at work even when Naomi could not see it. The very land she once left in sorrow became the place of her redemption. Her suffering was not meaningless; rather, it was a pathway to something greater—God's unfolding plan of redemption. Ruth's story reminds us that our trials, no matter how painful, are not without purpose. When we remain faithful and trust in God's sovereignty, He weaves our hardships into His greater design for our good and His glory.

Ultimately, this book points beyond Naomi and Ruth to the coming Messiah. The lineage of Ruth leads to Jesus Christ, the ultimate demonstration of God's grace and redemption (Ruth 4:14-15). Their story assures us that even in suffering, God is sovereign, faithful, and working all things for the good of those who trust in Him.

나눔질문

1. 룯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봅시다.

Ruth chose to live as a covenant people of God, following Him unwaveringly even in the midst of despair. As God's people, how can we live with unshakable faith? Let's share our thoughts together.

2. 최근 내가 경험한 어려움이나 고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원하실까요?

What challenges or hardships have I recently experienced? How might God be shaping me through them?

마침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삶에 항상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항상 주님은 나의 삶이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룯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처럼 나의 삶도 주님께 드러질 때 하나님의 계획안에 주님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oving God, we believe that You are always good in my life. Even in my difficult and challenging circumstances, You are the God who allows the best for me. Just as You accomplished amazing works through Ruth's life, guide us so that when we offer our lives to You, we may experience the fulfillment of Your plan. We thank you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Help us to live a life that reflects gratitude and joy as children of God.

2.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Guide us to trust in Your goodness even in the midst of despair and hardship.